

유튜브 [임마누엘교회울현동] 인스타 [임마누엘교회울현동]  
홈페이지 [www.immch.or.kr] 카카오톡채널 [임마누엘교회]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훈련

12.21(토) 오전 9시 2층 교육관

**3** 12~1월 일정 안내

12.22(주일) 오후 1시 성탄축하파티

12.25(수) 오전 11시 성탄축하예배

12.31(화) 오후 8시 송구영신예배

1.1(수)~3(금) 신약 통독수련회

1.6(월)~10(금) 오전 5시 30분 신년 안수기도회

**새가족 등록 절차**

- 1 새가족실(B1)에서 신청서 작성
- 2 일대일 양육
- 3 속회(소그룹) 배정
- 4 양육수료후 등록교인이 됩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일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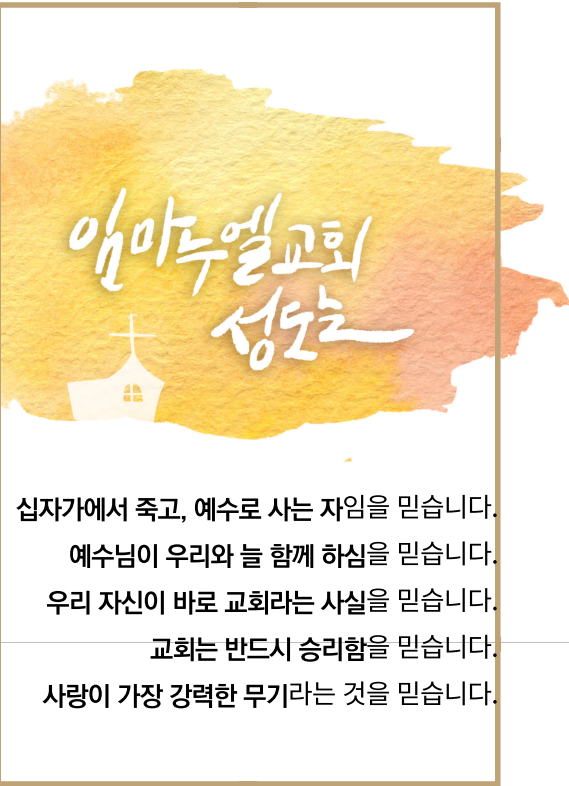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뽕엘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노복임 권사 2부 마송초 장로	
성경	사도행전 27:1-26(새번역)	사회자
특송	눈을 주님께 돌려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말하다	임마누엘찬양대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주 품에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 주일 대표 기도

12/22 1부 박현희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12/29 1부 변희주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 요한계시록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 가 정 예 배

##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내가 주인삼은  
말씀\_사도행전 27:1-26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로 로마로 출발합니다. 이 일행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로마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탔습니다. 이 배에는 총 276명의 사람들이 승선하게 되었는데, 선원과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과 여행객, 그리고 상인들까지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던 때는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풍세가 배의 움직임을 허락하지 않아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바다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출항을 늦추자고 백부장에게 건의했습니다. 바울은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배가 출발하고 한동안은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광풍 '유라굴로'가 일어납니다.

이 유라굴로가 얼마나 거세던지, 노련한 선장과 선원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는 유라굴로가 이끄는 대로 이리 저리 끌려다닙니다. 유라굴로는 사흘간 계속되었고,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린 사람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가정예배

이런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절망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때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배에탄 27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여명이 사라질 때, 해도 별도 빛을 감춘 때, 절망으로 낙심했을 때, 그 때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당신은 절망의 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유라굴로와 같이 큰 풍랑을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그 어려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함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소망의 불꽃을 전하셨습니까?

##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집 / 감사헌금-김바울집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